

고흥군, 제5회 드론봇챌린지 대회 개최

육군 주최...고흥군·대전광역시·서울대 등과 공동 주관 31개 팀 치열한 예선 거쳐 10개 기업 '임무형 챌린지' 진출

고흥군은 지난 1일 고흥드론센터에서 육군이 주최하고 고흥군·대전광역시·서울대 등이 공동 주관하는 '제5회 드론봇챌린지 대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드론봇챌린지 대회는 드론봇에 대한 국내기술 개발 분위기 조성 및 군의 작전 운용개념 및 요구능력 수준을 알리고 민·관·산·학·연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31개 팀이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 10개 기업이 고흥에서 '임무형 챌린지' 분야에 진출하였고 전남도내 기업으로는 총 3개 팀이 도전해 눈길을 끌었다.

드론봇 챌린지 대회 참관식에는 고흥군수, 고흥군의회 의장 및 의원, 육군교육사령관, 전투발전부장, 전라남도 전략산업국장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어 드론봇 소개 영상 시청과 대회 관람을 통해 대대급·중대급·정찰드론, 공격드론, 원거리 정찰드론 등의 임무수행 과정을 참관하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드론 기술 수준을 공유·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영민 군수는 "드론봇챌린지 대회가 2회 대회부터 매년 고흥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흥이 '대한민국 드론 중심도시'로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육군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해 4월 육군-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차세대 드론산업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군은 고흥드론센터 내 드론봇 협력사무소 설치, 대회 행정지원 등 드론 시



장의 비마켓인 군(軍)과 협력망을 지속 유지해 육군 관련 대회 유치 및 관내 드론 기업의 군(軍) 시장 진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는 등 드론중심도시로서 입지를 탄탄히 굳혀가고 있다.

고흥군은 민선8기를 시작으로 드론관련

기업을 지속 유지하고 내년부터 ▲고흥 드론 엑스포 개최 ▲농동 인공섬 드론쇼 개최 ▲드론 전문학교 신설 등으로 드론시장의 경쟁우위를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순천시, 추석 명절 맞아 특별 성묘 대책 추진

오는 12일까지 운영...성묘객 성묘 지원

순천시가 오는 12일까지를 특별 추석 성묘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추모공원과 공원묘지를 방문하는 성묘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성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공원묘지를 찾는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시내버스를 현행 8회에서 10회로 2회 증회하여 운행한다.

또한, 매년 성묘객들로 교통체증이 심한 남교요거리-공원묘지-순천여고 구간은 추석 당일(9월 10일) 일방통행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양방향 주차를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추석 당일인 10일에는 봉안당의 성묘 시간을 7시부터 18시까지로 평상시보다 2시간 연장하고, 추모공원과 공원묘지의 화장·매장 업무는 중단된다.

시는 방문 성묘가 어려운 성묘객을 위해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순천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추석 당일은 참배객으로 혼잡하니 미리 성묘하거나 온라인 성묘를 적극 활용해 달라"며 "봉안당 참배는 대기 추모객을 배려해 10분 이내 추모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추모공원과 공원묘지 내 조화(플라스틱 꽃) 반입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니 성묘객들도 동참해 환경을 생각하는 성묘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보성군, 딸기 안정생산을 위한 화아분화 검경 서비스 시작

반드시 화아분화 확인 후 정식해야 안정적인 수확 기대



보성군은 9월 5일부터 23일까지 딸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딸기 안정생산을 위한 화아분화 검경 서비스를 실시한다.

검경 희망 농가는 딸기묘 3~5주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면 현미경을 통해 생장점을 관찰하고, 화아분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적절한 정식시기 판단 및 화아분화 촉진 기술도 안내받을 수 있다.

미분화된 묘를 조기에 정식한 경우에는 영양생장이 지속되어 꽃대 출현이 늦어져 수확이 지연되고, 적기보다 늦게 심을 경우에는 고품질 딸기 수확이 어렵기 때문에 딸기의 화아분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딸기 재배에서 매우 중요하다.

딸기는 11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에 출하하는 것이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데, 모종이 꽃눈 분화된 상태에서 정식해야 11월부터 수확할 수 있고, 5월까지 안정적인 생산으로 다수확을 할 수 있다.

보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보성군에서는 안정적 딸기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지원으로 농가의 소득향상에 힘쓰고, 최근 이상 기후변화로 정식기 환경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화아분화 검경 후 꽃눈이 분화된 묘를 정식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 딸기 재배 면적은 총 71ha이며, 320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고소득 지역 특화작목이다.

보성=김덕순기자

광양시, 추석맞이 공원 환경정비 및 시설물 점검

도심 생활권 공원 대상 이용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광양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과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보수와 환경정비를 오는 8일까지 실시한다.

추석맞이 환경정비는 어린이공원, 소공원, 도심 생활권 공원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거, 편의 시설물 보수, 거미줄 제거, 덩굴과 잡초 제거 등을 실시해 이용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설물 정비는 어린이 놀이기구, 벤치, 정자 등을 자체 점검하며, 미관을 저해하는 곳은 도색작업을 하고, 안전을 위해 보수가 필요한 곳은 신속히 보수작업을 시행한다.

환경정비는 노인일자리와 도시공원관리단

이 실시하며, 소공원 58개소는 노인일자리 1:1 전담제로 잡초와 쓰레기를 수거하고, 어린이공원과 도시공원 100개소는 도시공원관리단 48명을 투입해 산책길 주변 덩굴 제거와 풀베기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재원 공원과장은 "추석 연휴 동안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한 친지와 함께 공원에서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여수시, 추석 연휴기간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9월 8일 오전 8시부터 13일 오전 8시까지

여수시와 여수시도서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규)이 추석 명절 시민과 귀성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유료 공영주차장 33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

개방 기간은 명절 연휴 하루 전인 9월 8일 오전 8시부터 13일 오전 8시까지다.

귀성객은 물론 전통시장과 상가 이용객에 주차 편의를 제공해 추석 대목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성객을 수송하는 대형버스의 안전한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웅천천수공원과 진남경기장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앞 공영주차장 2개소에 대형버스 임시주차장을 운영한다.

연휴 전 주차장 시설 점검과 청결활동도 실시한다.

여수시도서관리공단에서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사전 시설 점검과 청결활동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화장실 등 시설 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기동취재본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